

오피니언

월/요/광/장

이정애



해마다 연말이 되면 구세군의 빨간 자선법자를 통한 모금 활동을 쉽게 볼 수 있다. 사람의 나눔을 통해 소외된 이웃들에게 삶의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다. 일년 동안 열심히 모았을 패지저금통을 놓고 가는 어린 아이, 꼬깃꼬깃한 찜뚱을 꺼내어 전해주시는 할머니까지... 이렇듯 많았을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얼굴 없는 천사들' 덕분에 올해도 자선법비에는 차곡차곡 사랑이 쌓이고 희망이 싹튼다.

평가받는 한국의 기부금 규모는 국내총생산 대비 0.9% 수준으로 미국의 절반에 불과하며, 최근 10년 사이 전체 국민 중 기부 활동에 참여한 사람은 오히려 줄어든다는 보고다. 나눔이 이처럼 미진한 이

기부도 훈련이 필요하다!

유는 사회적 나눔에 대한 교육과 인식의 부족, 세제혜택과 같은 보상체계의 미비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빌 게이츠의 요즘 직함은 자선가다. 그는 교사 출신의 어머니를 통해 어릴 적부터 기부와 나눔에 대해 눈을 뜨게 되었다고 말한다. 어머니의 헌신적 자선 활동은 어린 빌 게이츠에게 가장 중요한 귀감이자 교육이 되었으며, 이를 통해 삶의 진정한 행복도 배우게 되었다고 한다. 미국 초

등학교들은 매년 학교에서 열리는 소소하고 다양한 자선 행사에 참가하게 된다. 이런 활동을 통해 나눔은 당연한 것이라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교육되고 있다.

아직 우리나라는 문화 선진국처럼 일상적인 기부 행위가 정착되기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기부 문화를 활성화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며, 기업은 그들의 사회적 책무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기부에 동참해야 한다.

그러한 기반 아래 일반 국민들의 적극

적인 기부 문화 또한 활성화될 것이다. 또한, 학교 교육을 통한 사회봉사과 나눔의 기회를 많이 만들어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이웃과 나누는 마음을 체득하게 해야 한다. 이 모든 것들은 일회성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거시적인 안목에서 체계적인 틀을 갖고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그 성과를 거둘 수 있다.

2010년 11월 국정감사에서 '사랑의 열매'(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비리와 부정

이 드러나면서 기부단체의 신뢰는 바닥에 떨어졌다. 최근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기부할 마음이 사라졌다'는 응답이 약 60%를 차지할 정도로 국민들의 기부단체에 대해 배신감과 분노를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올 겨울에도 추위는 여전하고, 사회 양극화로 도움이 손길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은 더욱 늘어나는데, 이번 일로 말미암아 기부금이 줄어들어 그들에게 사랑을 전해줄 수 없을까봐 걱정이다.

기부단체는 그동안 쌓아온 신뢰를 회복하려면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이번 일을 교훈으로 삼아 보다 투명하고 건강한 기부 문화가 우리 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한다.

기부와 나눔에는 감동이 있다. 사람들이 살 만한 세상이라고 느끼는 것은 이러한 감동의 힘 때문이다. 감동을 주는 일에도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며, 또한 나눔 감동의 에너지를 잃지 않기 위해서 나눔의 문화와 제도를 투명하고 도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기본일 것이다.

<전남대 의대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광주은행 민영화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

우리금융과 분리매각하기로 했던 광주은행의 민영화가 원점으로 돌아갔다. 정부가 우리금융 매각입찰 절차를 전면 중단하면서 광주은행과 경남은행의 분리매각도 취소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광주은행 분리매각 철회는 금융당국의 민영화 의지를 의심케 하는 무책임한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광주·전남 지역민과 지역경제계에서는 그동안 광주은행의 분리 매각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광주은행이 명실상부한 지역은행으로서 지역과 함께 동반성장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지난 17일 우리금융의 매각 관련 절차 중단과 함께 광주은행의 분리매각도 취소했다. 공적자금 회수에 분리매각이 유리한지 비교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금융당국이 민영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실현성 있는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우리는 그동안 공적자금 회수도 중요하지만 광주은행의 조기 민영화를 신속히 진행할 것을 정부에 촉구해 왔다. 민영화 10년 가까이 지연되면서 잦은 지배구조 변경과 경영진 교체, 정부 측의 입김 등으로 광주은행이 몸살을 앓으면서 지역은행으로서 제자리를 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광주은행의 민영화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관련 작업을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 금융당국이 의지한다면 우리금융의 매각 절차와 상관없이 광주은행과 경남은행의 분리 매각작업은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지 않은가. 거듭 강조하지만 지역 금융시장 발전을 위해서도 광주은행 민영화는 더 이상 시간을 끌어서는 곤란하다.

정부는 공적 자금을 회수하는 일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 광주은행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고 지역과 동반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北 '誤判' 못하도록 완벽한 대비태세 갖춰야

서해 연평도 사격훈련을 둘러싸고 남북 간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우리군의 해상사격훈련 재개에 대해 북한이 '자위적 타격'을 경고한 가운데 군 당국은 "가장만 좋으면 20일 또는 21일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무력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군은 연평부대에서 매일 한 번 꼴로 실시해온 우리 영해에서의 정당한 훈련이기 때문에 북한의 위협이나 외교적 변수 등이 고려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지난번처럼 북한이 우리 영토에 대한 무력도발을 감행할 경우 자위권 차원에서 강력히 응징한다는 방침도 이미 천명한 바 있다.

우리는 군 당국이 연평도가 아닌 백령도나 휴전선 비무장지대 등에 대한 북한의 도발 여지 등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을 것으로 믿는다. 북한이 훈련을 핑계로 또다시 도발해온다면 강력하고 결

연한 의지로 확실한 반대를 보여줘야 한다는 얘기다.

자위권 차원의 대응은 미국도 이미 양해한 사항이 아닌가. 주한 미군 20여 명이 이번 훈련에 참가하고, 필립 크롤리 미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가 훈련에 공개적인 지지 의사를 밝힌 것도 그 때문이다.

이번에는 교전 규칙에 얽매어 제대로 응징하지 못했던 연평도 사태의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포격이 됐든 철조망이 됐든 북한이 또 공격한다면 철저히 응징해 다시는 도발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자들의 오판도 차단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남북 간의 긴장 상황에 훈련에 반대하는 중국과 러시아, 이에 찬성하는 미국과 일본 등 6자 간에 협상의 길이 열려야 하는 만큼 화전 양면의 전략은 필수적이다. 국민적 자신감을 바탕으로 한 정부 당국의 빈틈없는 대비태세와 외교 계로 또다시 도발해온다면 강력하고 결

법조칼럼

노진영



'지식 도둑', 무슨 뜻일까요? 흔히 도둑이라고 하면 남의 물건을 훔치는 사람을 뜻하는 말이지만, 최근엔 물건만이 아니라 남의 지식을 훔치는 '지식 도둑'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나 자신부터 말게는 많은 수의 국민이 '지식 도둑'이 되어 가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둘째,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에 저해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모방자 또는 위조자가 자신이 개발한 지식재산인 것처럼 유통시킨다면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고, 소비자로서 하여금 품질이 좋은 유명 상표로 오인하여 혼동구매를 하도록 할 우려가 있겠지요.

셋째, 대한민국의 대외신인도를 떨어뜨리는 면이 있습니다. 우리의 유명상품이 중국에서 '짜퐁'으로 유통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하였을 텐데, 우리가 바로 '어글리 코리아(ugly korean)'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광주지검에서는 인터넷 소령물을 통

내가 '지식 도둑'?

는 점포만이 아니라 인터넷 소령물에서도 극성스럽게 판매되고 있는데, 상표법위반사범으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둘째, 컴퓨터 프로그램을 정품 구매 대신 불법복제로 이용하는 경우로서 개인이 아닌 사업자가 업무상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셋째, 영화·음악 등 각종 콘텐츠를 공유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파일을 업로드하는 경우가 있는데, 둘째와 셋째의 경우는 저작권법위반사범으로서 역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지식재산권 전달 검사인 필자의 경우 위와 같은 사례는 아주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례이고, 흔히 알겠는 특허법, 실용신안법위반이나 디자인보호법위반 등의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고,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루어지는 일들인데 왜 위와 같은 행위들이 문제가 되는 걸까요?

첫째, 위와 같은 행위들은 국내의 산업발전의 저해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개발자가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연구·투자한 지식재산이 간단히 모방되어 그 성과가 침해될 경우 개발의욕을 상실시켜 결국 국내의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지요.

하여 속칭 '짜퐁' 제품을 대량 판매한 상표법위반사범 등을 구준히 단속하여 올해 58명(42건)을 단속했지만, 발생하는 숫자에 비하면 절대 역부족인 상태입니다.

최근에는 '굿 다운로더(good downloader) 운동' 등 지식재산권 침해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지식재산권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가 팽배한 것 같습니다.

'지식 도둑'이 되지 않기 위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지키기 활동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 속칭 '짜퐁' 상품을 구입하지 않는다면 판매자도 없지 않겠지요? 둘째,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구입합니다. 셋째, 인터넷 사이트에서 포인트를 얻기 위해 영화·음악 등의 파일을 업로드하지 않도록 합니다.

우리가 죄의식 없이 하는 '짜퐁' 구입 행위나, 인터넷 사이트에서 하는 클릭 한 번, 업로드 한 번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 국민 한 명 한 명이 세련된 법의식으로 무장하여 서로의 지식재산권을 지켜준다면 우리나라에서 '지식 도둑'이 사라지는 날도 곧 오리라 기대해봅니다. <광주지검 검사>

기고

박래인



광주의 영산 무등산 정상에 올라 그동안 발전된 광주시가지를 보았다. 아파트의 도시라 할까, 좀 삭막한 분위기다. 저 멀리 광산구도 해마다 늘어나는 아파트로 쪽쪽 뻗어가는 모습이 완연하다.

그런데 서구와 광산구 사이의 중심축은 너무 삭막한 들판에 널널한 조립식 건물들만 즐비해 보기에 흉하다. 이곳은 아무리 봐도 광주의 중심축으로 보이는데 왜 이리 삭막한 들판으로 방치되어 있을까. 바로 광주 공군비행장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일대 주민들은 수 십년동안 전투

의 비행소음을 해소하려면 전남도의 협력이 필요하다.

군 당국도 광주와 전남이 합의하면 비행장을 무안공항으로 이전할 수 있다 하니 이젠 상생의 길을 찾기 위한 방안을 도출해야한다.

두 지역이 함께 발전하는 길은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해 군 비행장과 광주공항이 무안으로 옮겨가는 것 밖에 없다. 광주 공항의 국내선이 무안으로 이전하면 광주시민들의 공항이용이 불편해질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당국의 적극 지원으로 광주-무안공항간 셔틀버스를 활성화 시킨다면 무안공항이용

공군비행장·광주공항 함께 무안으로

기 이착륙의 소음 속에 시달리며 고도 제한에 묶여 재산권 행사도 하지 못한 억울한 속에 살고 있다. 광주발전의 가장 큰 저해요인인 군비행장은 국익을 위해 필요한 존재이긴 하지만 이전 발전적인 방향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야 될 시점이다.

그러나 공항문제도 광주시와 전남도가 서로 양보 없는 줄다리기를 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광주시의 국내선 무안이전 반대나 전남도의 군 비행장 무안이전 반대가 모두 한 뿌리에서 갈라진 광주와 전남이 자기이기주의로 변한 때문이 분명하다.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 무안공항을 활성화 시키려면 광주시의 협력이 필요하고 광주중심 도시의 발전과 주민

의 불편함은 다소 해소될 수 있고 장기적 안목에서 광주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에 광주시 당국은 당연히 군 공항의 이전에 적극성을 보이며 국내선 이전에 동의하여 광주공항의 폐쇄에 최선을 다해야한다.

한편 전남도는 군비행장이 무안공항으로 이전하면 그 지역 일대의 소음피해 등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지만 그것 보다는 무안공항의 활성화를 위해 군장을 받는 것이 현명한 일이다.

광주와 전남은 둘이 아닌 하나다. 우리는 상생의 길 앞에 서로의 주장만을 강조하지 말고 양보의 길로 나아가 내일의 발전을 기약해야한다. <광주시 서구 덕흥동 902>

세균 득실 음식물 수거함 손잡이 분리 소독할 수 있었으면

아파트 단지에 설치되어 있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 덮개 손잡이에서는 인체에 해로운 세균이 많이 서식한다. 그것을 항상 만지는 사람이 주부들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나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은 아파트 단지 내 수천 명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많은 세균이 옮겨다니므로 식품위생에 큰 위협을 준다.

최근 기차역이나 버스터미널의 공중화장실 변기와 지하철 손잡이 등도 위생안전을

위협하는 세균이 득실거린다는 보도가 있었다. 하지만 음식물 수거함 손잡이의 세균이 더욱 심각한 수준이라고 하니 큰 문제가 되는 것이다.

앞으로 아파트 단지 내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 손잡이는 항상 분리해서 소독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급하길 바란다. 또한 아파트(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관리 규정을 고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의무적으로 매일 2~4회씩 수거함 손잡이를 소독해서 교체해 주길 바란다. <송회관·광주시 북구 문흥2동>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6메일 opinion@kwangju.co.kr

無等鼓

집권 후반기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이 잇따라 화제가 되고 있다. 배추값이 천정부지로 폭등하던 지난 9월 말 이 대통령은 청와대 주방장을 불러 "배추가 비싸니 내 식탁에는 배추김치 대신 양배추 김치를 올리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네티즌의 반응은 싸늘했다. 작은 것부터 실천하려는 정성은 지극하지만 양배추값마저 크게 오른 상황에서 "뽕이 없으면 케익을 먹으면 되지"라는 말이 나돌았다는 것이었다.

여당의 새해 예산안 '날치기' 처리과정에서 '폭력'을 주고 받은 김성희 의원에 대한 격려 전화도 논란을 빚었다. 김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대통령께서 직접 '예산이 처리되는데 애써주시고 감사하다'고 하셨다"고 밝힌 것이 사단이 됐다. 파문이 일자 김 의원과 청와대는 "격려가 아닌 위로전화를 한 것"이라고 진화에 급급했다.

이 대통령은 또 공적위 새해 업무보고에서 대형마트의 '통큰 치킨'과 관련 "나도 2주에 한 번은 치킨을 먹는데 값이 비

싸다는 생각이 든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의 선택권도 중요하지 않느냐'는 취지였지만 롯데마트의 판매 중단으로 누그러졌던 '치킨 논란'은 재점화하는 양상이다. 이 때문에 영세상인의 설 자리가 좁아졌다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엔 육군참모총장에 이 대통령과 동향(경북 포항)이자 고교(동지상고)지만 양배추값마저 크게 오른 상황에서 "뽕이 없으면 케익을 먹으면 되지"라는 말이 나돌았다는 것이었다.

해군총장, 박종현(포항) 공군총장에 이어 육·해·공군 수뇌부가 모두 영남 출신으로 채워졌다. 군사정권 종식 이후 3군 총장을 특정지역 출신이 쓸 수 있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번 군 인사가

가장 공평했다"고 평가했다. 3군 수뇌부를 동시 배출한 '특정' 지역엔 참 '통큰' 대통령이다.

19일은 이 대통령의 칠순이자 결혼 40주년, 당선 3주년을 맞는 날이었다. 특정지역이 아닌 국민 모두에게 '통큰' 대통령으로 남기를 바란다. <정후식 정책부장 who@kwangju.co.kr>

'통큰' 대통령



Table with 2 columns: Kwangju Ilbo and The Kwangju Ilbo. Contains contact information for the newspaper, including phone numbers, fax numbers, and website information.